

보다 특별해진 레드푸드 향연

장수군, 새로운 명칭으로 시작 'RED FOOD FESTIVAL' 우수한 평가 속에 막 내리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열린 장수군의 대표축제 '2024 RED FOOD FESTIVAL(제18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이름으로 개최된 만큼 변화된 모습, 보다 발전한 모습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수군은 해마다 축제장 경관, 프로그램 등 분야별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며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으며 방문객 수와 매출, 이밖의 평가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축제 초창기 콘셉트인 사과와 한우 중심의 농특산물 축제로 장기간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일부 존재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2024 RED FOOD FESTIVAL'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콘셉트를 도입해 17년간 유지해온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를 부제로 변경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 것이다.

축제의 대표 콘텐트인 한우마당과 사과마당은 올해에도 싱싱한 농특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인파가 가득했고, 2,500석으로 마련된 한우마당 셀프식당은 4일간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레드푸드존'에서는 장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베이커리, 음료, 주류, 간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레드푸드쇼'에서는 레드푸드를 활용한 요리, 하이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열린 장수군의 대표축제 '2024 RED FOOD FESTIVAL(제18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막을 내렸다.(사진은 개막식 모습)

더불어 레드푸드를 활용한 '레드푸드 전국 가족요리대전'과 '아빠와 함께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기' 등 요리 프로그램은 가족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의안공원과 누리파크의 넓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여유로운 축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날찍한 장수종합경기장으로 메인무대를 변경하고 부스 배치 변경, 축제장 규모 확장 등 전반적인 공간의 재구성도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축제장 질서유지와 안전유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

력을 세심하게 준비해 완성된 안전적인 축제장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이밖에 축제장 방문객은 평년 수준이었으며 축제장 내 판매수익은 각종 바우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약 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다양화된 장수군의 농산업을 축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는 레드푸드 페스티벌의 원년의 해로 축제를 알리는 데 집중했으며 내년에는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 한층 새로운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발돋움할 데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군립 공공도서관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97억원 투입 2027년 준공 목표

진안군은 군립 공공도서관으로 추진 중인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가칭)'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군은 진안을 군산리 481번지 일원인 학천지구에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군립공공도서관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진행해 건축사무소 8개소에서 작품을 응모했고, 최종적으로 당선작 1점, 3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설계안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과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으로 안팎 지질과 레벨 차이가 있는 부지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형태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배치했으며, 미야산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 이번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 오는 10월부터 약 8개월간 실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립공공도서관이 없어 군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를 경험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추석맞이 고향 사랑기부제 이벤트 진행

무주군이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무주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20명을 추첨해 (꿀, 도라지정교) 등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증정한다.

고향사랑을 홈페이지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무주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10월 4일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과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은 18일까지 주민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무주군, 지역 내 기업에 3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기업에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재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대상기업 모집 공고 중이다.

지원 대상은 특례보증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20%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약정금리의 2.0%는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이 최대 3년으로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시설자

금은 최대 10년으로 거치 및 분할 상환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기업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신청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에(063-320-2350)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결연가정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 시설관계자 격려·공무원 결연 가정 위로

전춘성 진안군수는 1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위문 방문은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전 군수는 또한 1:1 결연가정도 방문하며, 전 공무원이 결연 세대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전춘성 군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축제 성공 개최 위한 2차 실무추진단 회의 열려

진안군은 12일 군청 강당에서 오는 10월 3일~6일까지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4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가졌다.

김병하 부군수는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 및 부읍·면장 등 51명으로 구성돼 성공적인 홍삼축제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 교통대책, 홍보, 의료반 등 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차 보고회에 이어 2차 보고회에서는 이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같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홍삼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김병하 부군수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2024 진안홍삼축제를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준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알찬 축제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진안홍삼축제'는 10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진안고원로트레킹페스티벌, 세계최대 홍삼카데일쇼, 베베핀 해피콘서트 등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 공연, 판매 행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계초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협약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장계초등학교(교장 박인순)와 11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으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2024년도 사업 신청한 장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알레르기질환 환자 파악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사, 가정 및 보건 의료인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협약 내용으로는 △알레르기 질환 유발요인 사 진단 및 치료기회 제공 △알레르기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교내 응급체계 마련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알레르기 질환 악화요인 제거를 위한 교내 환경관리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실시

무주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1일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정수 소방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소방서 및 무주군청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석 명절 기간 화재 예방 당부 △점포 내 자율 안전 관리 철저 당부 △소방시설 점검 △완강기 사용법 안내 △소방용 소방시설 선불하기 홍보 등이 포함됐다.

또한, 무주소방서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김진수 서장을 비롯한 소방서 직원들이 참여해 과일과 채소,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